

벤츠 지난달 6848대 팔려… 수입차 시장 점유율 40% 돌파

프리미엄 중형 세단 ‘E-클래스’ 인기 앞세워… 월간 최다 기록

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주가 공고화되고 있다.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중형 세단 ‘E-클래스’의 인기를 앞세운 벤츠의 판매가 두드러졌다.

벤츠는 수입차시장 점유율 40%를 처음으로 돌파한 데 이어 지난 한달 간 6800여대를 판매해 월간 판매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월 수입차 판매는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1월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 1만6천234대에 비해 2.7% 증가한 1만6674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등록실적(2만117대)과 비교해서는 17.1% 감소했다.

수입차 판매는 작년 10월에 5개월 만의 반등에 성공했다가 11월, 12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1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벤츠 6848대, BMW 2415대, 포드 1023대, 토요타 895대, 렉서스 724대, 혼다 684대, 랜드로버 595대, 미니(MINI) 541대 순이었다.

지난해 BMW를 꺾고 수입차 1위를 차지한 벤츠는 1월에도 전체 수입차 판매

량의 41%를 차지하며 상승장구했다. 지난달 팔린 수입차 10대 중 4대가 벤츠였던 셈이다.

반면 이번달 E-클래스의 경쟁모델인 7세대 ‘뉴 5시리즈’ 출시를 앞둔 BMW는 판매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디젤 게이트’로 정부로부터 상당수 모델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는 지난달 474대를 판매했고, 판매할 차량이 아예 없는 폭스바겐은 0대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2118대(72.7%), 일본 2952대(17.7%), 미국 1604대(9.6%)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가솔린 8058대(48.3%), 디젤 7147대(42.9%), 하이브리

드 1435대(8.6%), 전기 34대(0.2%) 순이었다.

구매유형별로는 1만6674대 중 개인구매가 1만661대로 63.9%, 법인구매가 6013대로 36.1%였다. 1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벤츠 E 220 d(1263대), 벤츠 E 200(1048대), 벤츠 E 300(780대) 순으로 1~3위 모두 벤츠의 E클래스가 휩쓸었다. 4~5위도 벤츠 E 300 4매틱(626대), 벤츠 C200(582대)이 차지했다.

운대성 수입차협회 전무는 “1월 수입차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월보다는 감소했으나, 일부 브랜드의 원활한 물량 확보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벤츠 프리미엄 중형 세단 ‘E-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제공〉

차세대 먹거리 자동차 전장사업 삼성-LG ‘전쟁’

〈전자장비〉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이 전자업체의 새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업체 ‘하만’(Harman) 인수를 연내 마무리해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고, LG는 전장사업에서 분기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고삐를 죄어 나갈 기세이기 때문이다.

6일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VC사업본부는 작년 4분기에 전 분기와 견줘 28.3% 증가한 865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145억원)은 이어졌지만 매출 규모는 1년 전(5204억원)보다 66.4%나 늘어난 것이다. 전 분기(6749억원)와 견줘서도 28.3% 증가했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이런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LG전자가 올해 중 VC사업에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VC사업부도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매출은 40% 이상 증가한 약 4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LG전자가 전장사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2013년 7월 VC사업본부를 발족시킨 지 3년 만에 분기 매출 1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연 매출로는 4조원이다. 이는 전장사업이 안정된 궤도에 올라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LG전자 관계자는 “전장 사업은 아직도 초기 투자 단계”라며 “당장 수익을 올리기보다 아직도 당분간은 투자를 늘리며 시장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 전시회 ‘CES 2017’에서 참석자들이 현대모비스 전시관을 찾아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美 하만인수 마무리 후 본격 진출

LG전자, 분기 매출 1조 목표 투자 확대 주력

LG전자가 약 10년에 걸쳐 전장사업의 기반을 스스로 쌓아올렸다면 삼성전자는 M&A(인수·합병)를 통해 단숨에 전장업체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떠오르게 됐다.

하만은 이미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1위(시장점유율 24%), 텔레매틱스(차량에 탑재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2위(점유율 10%), 카오디오 시장에서 1위(점유율 1위)에 올라 있는 시장 선도 업체다. 무선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 OTA(Over the Air) 솔루션에서도 글로벌 선두업체다.

하만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지난해 매출은 69억1000달러(약 7조8660억원)였다.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하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그대로 진행

되던 삼성전자로 올해부터 전장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과 LG가 TV, 가전제품, 스마트폰에 이어 전장부품 분야에서도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두 회사의 주력 상품에 다소 차이가 있어 같은 시장을 놓고 맞바닥 치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LG전자의 경우 텔레매틱스와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중심으로 전장부품, 전기차용 부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뒤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의 하만 인수에 대해 “장기적으로 상당한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제네시스, 총상금 15억 KPGA 코리안투어 챔피언십 후원

제네시스 브랜드가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후원한다.

제네시스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오트웨이타워에서 제네시스 국내영업총괄 이광국 부사장과 KPGA 양휘부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시스 챔피언십’ 대회 개최 조인식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챔피언십은 오는 9월 21~24일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3억원, 제네시스 차량, 이듬해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 출전 자격을 준다. 총상금은 15억원이다. 이는 KPGA 코리안투어 단독 주관 대회 중 역대 최대다.

제네시스는 정규 대회 외에도 고객 초청 아마추어 대회와 유소년 대회 등을 진행하는 등 국내 골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오트웨이타워에서 ‘제네시스 챔피언십’대회 개최 조인식을 했다. 사진은 제네시스 국내영업총괄 이광국(왼쪽) 부사장과 KPGA 양휘부 회장.

〈제네시스 제공〉

아울러 미국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오는 16~19일 미국 서부 LA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PGA 투어 토너먼트 ‘제네시스 오픈’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해 수입차 판매 줄었지만 트럭은 늘었다

7726대 판매 역대 최대치

폭스바겐그룹 ‘디젤 게이트’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7% 넘게 줄어든 가운데 수입 트럭 시장은 오히려 70%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트럭은 7726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43%대보다 무려 75.8%나 판매가 늘었다.

국내 수입 트럭 판매량은 2009년(2143대)부터 2013년(2395대)까지 2천대 수준

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한·EU 및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 차량에 붙던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국내 수요도 폭증했다.

미국 상용차 업체인 나비스타가 한국에 진출한 것도 트럭 수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2014년에 3930대로 3천대를 돌파한 수입 트럭 판매량은 2015년 43%대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330대나 더 팔렸다.

국내 수입 트럭 판매 1위 업체는 볼보 트럭코리아로 지난해 역시 자체 사상 최

대인 2600여대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트럭 수입은 급증하고 있지만 볼보를 제외하면 서비스네트워크(정비 사업소) 수는 크게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볼보의 국내 서비스네트워크 수는 전국 29개에 달하지만 스카니아코리아, 벤츠, 만 등의 사업소는 업체별로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정비할 때 찾는 직영 서비스센터 수는 이보다 더 적다. 업체별로 전국에 3~4곳씩만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입 트럭 차주들은 부품 정비 작업 등에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062)224-4869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 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6·92 (육구이)

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간성숯불석쇠구이, 숯불구이, 석쇠숯불곱창
석쇠숯불막창 배달전문점
☎062)464-0692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환영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061)333-2256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갤러리봄

동구 예술의 거리 20-6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전시장

대표 최정화 ☎010-9078-1800

튼튼동물병원

동구 계림동 이마트상가층
각종 백신 및 미용 중성화수술, 호텔
각종애완용품 취급 전문

☎062)511-7582, 010-3263-7582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정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우청미술관

동구 금남로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생수 ☎062)383-8408

행복공인중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대풍쌀농산

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찰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1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사주, 음권,
양권, 사주학, 수지학, 수축침, 이침)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로도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